

재건축 속도전...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 가동

공공건축공사 설계~완공 꼼꼼하게
노원구, 품질·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남구, 기능별 3개팀 운영
(열등 중저·전문 전문·대민 상담)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지원단은 재건축 사업의 갈등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가동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 산하 전문 조직으로, 지난 29일 구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정비사업과 법률, 건축,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8월1일부터 2029년 7월31일까지 3년이며, 기존 전문 기능을 한창 수요에 맞춰 재편하고 인력과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위원은 정비사업 전문자를 비롯해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과 교통, 부동산,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도 참여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안 해결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갈등중재팀과 전문자문팀, 대민상담팀 등 기능별 3개 팀으로 운영한다.

갈등중재팀은 분쟁이 발생한 사업을 직접 찾아 주민과 조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



지난 29일 열린 신속추진 전문가지원단 위촉식에 참석한 김현기 구청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다. 정기 방문과 수시 중재를 병행해 문제를 초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사업장별 현안이 생기면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안팎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한다. 법률과 감

정평가, 건축,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을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민상담팀은 기존 주 1회였던 전문가 상담을 주 2회로 확대한다.

전문가 구청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 정비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분쟁 등 재건축 전반을 상담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재건축 갈등은 사업 지역의 가장 큰 원인이

운데 하나"라며 "전문가 지원단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 서대문구, 전문가 검증체계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최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을 열고 구청장 직속 민관 합동 TF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구에 따르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한계가 있는 정비사업 진행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새로운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TF는 재개발, 회계,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1개월 동안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처리 적정성, 법률적 정당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다.

구는 이번 점검이 사업을 늦추거나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없지는 사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광진구, 올 하반기 中소육성자금 25억6000만원 지원... 年 1.5% 고정금리

휴·폐업 업체제 제외...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60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상한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통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관내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경제과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덜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bo.co.kr

중랑구, 8년간 소상공인·中소 2700곳에 1077억 융자... 경영 안정화 만전

올해도 262억5000만원 지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700여개 업체에 총 1077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시중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특별 신용보증 융자를 중심으로 투트랙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담보없이 부족하거나 고금리 부담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연 1.5% 수준의 저금리로 운영해 기업에 금융 부담을 낮췄으며, 특별 신용보증 융자는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회복을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소액 융자가 필요한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청부터 융자 실행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연 계약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에는 4대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262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랑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용보증과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역에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구는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8년간 추진한 1077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bo.co.kr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관악구, 신속·정확한 안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과태료 고지 전자장치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을 위반 사실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전 단계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과 반송 처리 등에 행정처리 예산이 소요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스템'은 위반 사실 안내부터 과태료 부과 고지까지 전 단계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간추린 뉴스



구로구 '우리동네 마을정원 식재 행사'에서 정인용 구청장이(가운데) 마을정원사들과 함께 화단에 다채로운 식물을 심고 있다.

구로구, 우리동네 마을정원 식재 행사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지난 29일 고척1동 일대에서 '마을정원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마을정원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함께 지역에 유익 공간을 정원으로 재조성하고, 정원문화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용 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구 마을정원사, 지역 기능단체장,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 대상지는 고척2동 3마을(고척동 129-15 일대)으로, 화살나무, 나무수국, 정원장미 등 총 7종의 다채로운 식물들

심어 기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도입된 구로구 '우리동네 마을정원' 사업은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구로구 마을정원사들이 정원 설계와 조성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식재 선정과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성진 기자 zini@siminibo.co.kr

강동구, 내일부터 느린학습자 문화예술 프로 운영

강동문화재단이 '자세히 보니 빛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문화 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느린학습자의 정서 회복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으로, 서울시 '2026년 약자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지역 예술인이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는 기관을 찾아가 문화 예술교육을 제공한다. 기관별 특성과 참여자의 수요를 반영해 미술·공예·음악·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과 세부 운영 협의를 마쳤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청소년과 청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며,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8~9월 주 1회, 총 6회 무료로 운영된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강동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는 문화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종로구, 17개동 현장 구청장실·주민 간담회

유한준 종로구청장이 지역내 17개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현장 구청장실 및 주민 공감 대화'를 무사히 마쳤다.

유 구청장은 지난 29일 세종마을을식문화거리 일대에서 주민,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크고 작은 민원이 귀 기울이는 시간을 보냈다. 또 연말 계획되는 복합 속에서 무더위로부터 운영 중인 사자정로담을 방문해 기가 상태, 실내 환기 시스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유 구청장은 더위를 피해 힐터를 찾은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더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냉방과 편의시설 관리에 인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탄 전했다.

사자정로담에서 열린 주민 공감 대화에서는 주요 골목상권 '일지리와 민생 활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주거지와 상업지의 생활 여건 개선에 주력할 것임을 알렸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강북구, 한강 작가 우이동 고책 도로 '노벨문학' 지정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작가의 문학작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우이동 고책 인근 도로를 '노벨문학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벨문학길'은 한강 작가의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내며 문학 감성을 키운 우이동 고책 주변에 부여된 명예도로이다. 명예도로명은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관광 자원 등 지역의

상징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 도로명과 별도로 부여하는 이름으로, 법적 주소는 기존 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구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이어가고,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명예도로 지정을 추진했다. 명예도로 구간은 삼양로165길 307m와 삼양로169길 일부 156m를 포함한 총 463m다. 명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은·오프라인 상호도 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금천구, 공중제이별 정비추진단 위촉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2026년 공중제이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공중제이별 정비추진단'을 꾸리고, 최근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추진단은 건설행정과장, 시흥1동, 시흥2동 주민 위원 10명, 공중제이별 정비 대사업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유력일부터 올해 말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위원과 사업자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중제이별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10·11월 두 차례 현장 점검공로를 실시해 정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12월에는 현장 합동조사와 함께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에는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정비 결과와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bo.co.kr